

유은학원 설립 100주년...“4차 산업시대 인재육성 앞장”

교육적 사명·헌신 다짐...미래세대 위한 새로운 도약

등문 13만여명 배출...민족자본 설립 상징 '기념관' 개관

광주 진월동에 자리한 학교법인 유은학원이 설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유은학원은 설립자 유은 최선진 선생이 '교육만이 어둠을 밝힐 빛이니 젊은이들이 의롭고, 슬기롭고, 율곧게 자라 자립하는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북돋우고자 한다'는 취지로 1921년 배움의 터를 열었다. 1945년 광주상업중, 1951년 광주상고·광주중성중, 1963년 광주여상고·동성여중으로 각각 개교했다. 이후 2000년 들어 광주상고를 인문계인 광주동성고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렀으며, 올해까지 총 13만286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유은학원 산하에는 현재 4개 학교(광주동성고·광주여상·광주중성중·광주중성여중)가 있다.

한 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학생은 물론 13만여명의 졸업생 역시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다.

최영태 총동문회 회장은 "우수한 광주·전남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안겨준다. 특히 강한 정신력과 학구열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주경야독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 때 광주상고(현 동성고) 야구부와 광주여상 배구부가 전국을 제패하던 시절,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에는 남·녀 동문 선후배들이 서로를 열싸우고 '비내리는 호남선'을 목이 터져라 부르며 응징력을 보임으로써 다른 학교 동문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최용선 이사장

또 과거 광주여상은 주산이나 암산대회에서 전국을 휩쓸었던 만큼 광주는 물론 전국 금융기관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문들이 씨줄·날줄로 얽혀 있어 지금까지도 '팬 파워'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학교를 빛낸 각계 각층의 동문에게 주는 유은인상의 면모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올해 유은인상에는 겨울스포츠의 꽃으로 한창 잘나가는 흥국생명 배구팀 박미희 감독(광주여상 20회), 현재 텍사스레인저스 투수로 활약중인 양현중(동성고 56회), 김승환(21회) 전북도교육감, 우오현(21회) SM그룹 회장, 윤종규(23회) KB금융지주 회장, 한상원(23회) 다스코 회장, 이명자(광주여상 5회) 오월어머니집 관장, 그리고 정치권에선 민주당 박광온(24회), 이개호(동성중 23회), 양향자(광주여상 23회) 국회의원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은학원은 지난 26일 기념식과 함께 유은학원 1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 박물관 '기념관'도 개관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기념관은 1993년 세워진 법인 이사장실 '유은관'을 지난해 교육청 지원금 등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투입,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이곳에는 유은 최선진 선생과 학원의 역사 자료를 총망라해 전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 동문이 기증해 준 1952년도 광주상고 1회 1호 졸업장 등 귀중한 자료도 선보이고 있다.

유은학원 이사장은 "유은학원은 지난 100년 동안 자수성의 확립, 도의성의 함양, 창조력의 계발을 기치로 삼아 달려와 오늘에 이르렀다"며 "유은 선생의 교육적 사명과 헌신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인류 공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동문을 배출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유은학원 창립 100주년 기념식 참가자들이 학원 역사 박물관인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관의 개관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학교법인 유은학원 제공>

유은학원 이사장은 "유은학원은 지난 100년 동안 자수성의 확립, 도의성의 함양, 창조력의 계발을 기치로 삼아 달려와 오늘에 이르렀다"며 "유은 선생의 교육적 사명과 헌신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인류 공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동문을 배출했다"고 강조했다.

유은학원 이사장은 "유은학원은 지난 100년 동안 자수성의 확립, 도의성의 함양, 창조력의 계발을 기치로 삼아 달려와 오늘에 이르렀다"며 "유은 선생의 교육적 사명과 헌신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인류 공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동문을 배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학 양성에 구슬땀을 흘렸던 수많은 교직원들의 노력과 유은 동문의 애교심, 그리고 후배 사랑으로 오늘의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며 "앞으로의 100년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학위취득·실무경력 동시에”

목포과학대학교, 교육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전남 유일 운영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휴먼융합복지과 80명·건설융합과 40명

"학위 취득과 경력개발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목포과학대학교(총장 이승훈)가 교육부 사업으로 진행중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의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목포과학대학교는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2019년 하반기부터 4년간 매년 9억원씩 지원받는 사업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융합학부로 휴먼융합복지과(80명), 건설융합과(40명)에서 총 120명을 모집하며, 조건으로만 25세 이상의 고등학교 학력 이상자가 해당된다. 2022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주중 야간·주말 수업, 온라인 강좌, 집중이수제 등 수업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과정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건설융합과 방수기능사 실습



휴먼융합복지과 숲체험 실습 장면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자격증 지원, 실습 지원,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외 다양한 학비 경감 장학 혜택을 누리고 있다.

휴먼융합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사 및 운동건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파크골프, 숲체험, 심리상담, 댄스스포츠 등의 실습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융합과에서는 건설현장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지게차, 굴삭기, 방수기능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후 자격증 취득까지 연계해 수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다른 대학의 같은 분야 졸업생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목포과학대학교 미래융합학부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 기간이 9월 10일부터 10월 4일로 확정됐다. 면접고사는 10월9일 실시하며 10월15일 합격자 발표를 한다. 수시2차는 11월8일에서 11월22일까지, 정시모집은 2021년 12월 30일에서

2022년 1월1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훈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은 "다년간의 교육과정 운영결과, 성인학습자의 재취업, 이직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알려져 입학 경쟁이 더욱 치열지고 있다"며 "다양한 장학제도와 성인친화형 학사제도로 성인학습자들의 성공적인 학위 취득과 선취업 후학습 경로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MSU 2022 신입생 모집 일정

구분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모집	추가모집
원서접수기간	2021.9.10(금)~10.4(월)	2021.11.8(월)~11.22(월)	2021.12.30(목)~2022.1.12(수)	2022.2.12(토)~2.28(일)
면접고사	2021.10.9(토)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합격자 발표	2021.10.15(금)	2021.11.29(일)	2022.1.19(수)	개별행보
등록기간	2021.12.17(금)~12.20(일)	2021.12.17(금)~12.20(일)	2022.2.9(수)~2.11(금)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르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틀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